



미주한인재단 LA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LA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THE 123RD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S.A.

제 123주년 미주한인의 날 및
제 23회 LA / 21회 연방 선포 축하식

2026년 1월 12일(월) 오후 4시

Oxford Palace Hotel

745 S Oxford Ave, LA, CA 90005

GALA EVENTS OF THE DAY

1부 | 4pm

123주년(23회LA:21회연방)미주한인의날 기념 선포식 감사예배:

주관: 남가주 한인기독교 교회협의회.

23회LA선포식: By-John Lee LA시의원

전수위원장: 이병만회장(미주한인재단LA)

2부 | 6pm

만찬&나눔의 시간-음악 축제 | 한복쇼와 성악공연. 카우벨 연주•요들송
성악 이중 창:가수 & 테너-드레스쇼등

협력



주 LA총영사관



재외동포청



미주한인의날 추진위원회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프 로 그 램 P R O G R A M

1부 | 4pm

123주년(23회LA:21회연방)미주한인의날 기념 선포식 감사예배

주관: 남가주 한인기독교 교회협의회

강사 제56대 회장 김은목 목사
가야금연주 윤사론

123주년 (23회LA:21회연방) 미주한인의날 기념 선포식! | 5pm

사회 이서희(주요 요점 통역:Dr미미송)
목념 한.미 국가를위해
양국가 최왕성/이주는
기념식 대표기도 양성전 목사(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대회선포 임경해(준비위원장)
환영사&내빈소개 이병만 미주한인재단LA 회장
환영사 김영완 총영사
기념사 잔리 시의원
23회LA선포문 중 John Lee LA시의원
전수위원: 이병만회장, 명예대회장: 홍대순원장, 명예대회장: 이종용목사,
김은목 교회회장, 양성전(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미미송박사(수석부
대회장), 임경해(준비위원장) 선포문 인수 마감
환영사 이종용목사(명예 대회장/미주한인재단LA자문위원장)
축사 홍대순 광운경영대 원장(명예 대회장)
축사 송병주목사(1대실행위원장/코빅19·강사)와 축사(영상) 순

2부 | 6pm

123주년(23회LA:21회연방)미주한인의날 기념 선포식

사회자: 이서희(통역 Dr미미송)

축사 장병우 LA평통회장/곽도원 OC평통회장
히스페닉계 대표-Dr Rafial, Jazmina Saavedra
Sarah Stephens(전 CA주지사 출마자)
Dr김동수(전 미주한인의날 기념식 대회장)
손혜숙 (Kowin Pacific LA 초대이사장)와

식사&나눔의 시간

축제 | 6:15pm~8pm

한복쇼 한국,LA국제모델 총연합회
독창 에스도 구 / 최왕성
특별출연 홍대순교수 카우벨 연주
특송 이종창: 가수 Catherine Park & 테너 Dongwhi Baek
요들송 이은경교수
독창 Dongwhi Baek
드레스쇼 •시간 일정따라 순서는 변경됨

마침-8:15pm

Part 1: Commemorative Thanksgiving Service (4:00 PM)

Hosted by: The Council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Guest Speaker: Rev. Eun Mok Kim (56th President of the Council)

Gayageum Performance: Sharon Yun

Proclamation Ceremony (Main Event) | 5:00 PM

Moderator: Seo-hee Lee (Interpretation: Dr. Mimi Song)

Moment of Silence: For the Nations (Korea & USA)

National Anthems: Wang-sung Choi / Ju-eun Lee

Invocational Prayer: Rev. Seong-jeon Yang (Advisory Member, National Assembly Prayer Breakfast)

Declaration of the 123rd Korean American Day:

Kyung-hae Lim (Organizing Chair)

Welcoming Remarks & Introduction of Guests: Byung-man Lee (President, Korean American Foundation USA-LA)

Welcoming Remarks: Young-wan Kim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A)

Commemorative Remarks: Councilmember John Lee (LA City Council)

Presentation of the 23rd LA Proclamation

Presenter: Councilmember John Lee

Recipients: Byung-man Lee, Dae-soon Hong (Honorary Chair),

Rev.Jong-yong Lee (Honorary Chair), Rev. Eun-mok Kim, Rev. Seong-jeon Yang, Dr. Mimi Song (Senior Vice Chair), Kyung-hae Lim

Welcoming Remarks: Rev. Jong-yong Lee (Advisory Chair, Korean American Foundation USA -LA)

Congratulatory Remarks: Dr. Dae-soon Hong: Dean of Gwangwoon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Honorary General Chair)

Congratulatory Remarks: Rev. Byeong-ju Song (1st Executive Chair) & others (via Video)

Part 2: Special Celebration | 6:00 PM

Moderator: Seo-hee Lee (Interpretation: Dr. Mimi Song)

Guest Congratulatory Remarks

Byungwoo Jang, David Kwak

Hispanic Community-Dr Rafial, Jazmina Saavedra, Sarah Stephens(Former CA governor Candidate), Dr. Dongsu Kim, Son Hye-sook and & others

Dinner & Fellowship

Grand Festival & Cultural | 6:15pm~8pm

Grand Festival (Cultural Program)

Hanbok Fashion Show: Presented by Korea & LA International Model Association

Solo: Esther Koo / Wang-sung Choi

Special Guest Performance: Cowbell Performance by Prof. Dae-soon Hong

Special Vocal Duet: Catherine Park & Tenor Dong-whi Baek

Korean Brst Yodel Song: Prof. Eun-kyung Lee

Vocal Solo: Dong-whi Baek

Evening Dress Show: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progress of the event time.

Closing:8:15PM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미주한인재단 소개

About the Korean American Foundation L.A.

• 탄생 배경

1903년 한인들의 하와이 이민 이래 미주한인들의 과거 경험과 현재를 성찰하고, 후세를 위한 미래를 설계하여 미국생활의 각방면에서 한인들의 정체성과 생활향상과 권익을 위하여 남가주 “100주년 미주한인의날” 대행사 이후 더 큰 활동을 위한 미주한인재단LA가 탄생함으로 그 조직이 시작되었다.

• 지향 목적

미주한인들의 뿌리와 전통을 살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한인들의 힘을 한군데로 모아 주류사회로 나아가 한인들의 위상을 최대로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 사명 선언

미주한인들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결집하고 소수민족들과 타인종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모국과 미국의 결속을 지향하여 미국사회와 모국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 사업 목표

교육 문화 예술 등 사회 각분야에 걸쳐서 다방면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다함께 협력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한인사회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발전 모델을 수시로 찾아 행동한다.

• 임원 구성

회장과 임원진을 한인사회에서 발굴하여 1세대 2세대가 함께 일한다.

• 기타 사항

제기되는 모든 항목은 일반상식과 미국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 Birth Background

Since Koreans immigrated to Hawaii in 1903, they have reflected on the past experience and present of Korean Americans, and designed the future for posterity to improve the identity, status and interests of Koreans in various aspects of American life and the organization began with the birth of the Korean American Foundation L.A. for greater activities after the “100th Anniversary of Korean American Day” in Southern California.

• Orientation Purpose

We strive to preserve the roots and traditions of Korean Americans and to unite the power of Koreans in solidarity with various organizations in the Korean community to advance into mainstream society and raise the status of Koreans to the maximum.

• Mission Statement

We want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merican society and our motherland by concentrating the diversity and creativity of Korean Americans, actively interacting with minorities and other races, and aiming for solidarity between the motherland and the United States.

• Business Goals

In the atmosphere of a mutually beneficial Korean society, we frequently find and act on active development models by preparing measures to find, develop, and support necessary parts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such as education, culture and art, and cooperate together.

• Executive Composition

The chairman and executives are discovered from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work together.

• Miscellaneous

All issues raised will be reasonably resolved in accordance with common sense and US law.

123주년 미주한인의날을 축하합니다

예손 몬테소리 학교
Jesus Hands Montessori School

Preschool Kindergarten

새로운 전통적인 안전한 학교의 시설

- 대입 드레싱 에베를 통한 신인교과
- 방목별 몬테소리 교육과 준비된 교육환경
- 교육자를 비롯한 교사 교육 및 이대어가는 개발 영재교육 프로그램
- 유아교육을 전공한 경험많은 한 미 교사들
- 새로 확장한 안전한 학교 깨끗한 시설
- 넓고 쾌적한 운동장과 주차장
- 사랑의 손길로 만들어지는 온화로운 분위기 (#304270915)

인간성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부도남들이 현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 (17개의 커넥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의 모습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Pre-School, Preschool, After School

2-5세, 6-12세, K-12th (1800명에서 1200명까지)

CC카메라가 설치된 안전한 학교 www.jhmschool.com

Tel 714.690.1366 Fax 714.690.1265

(플러튼 한인마켓에서 남쪽으로 2블럭 오른편)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123주년 미주한인의날을 축하합니다

“예배가 회복 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

평화교회

2026년 포어: 영적예배를 회복하라!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수요 Bible Academy: 저녁 7시
금요기도회: 저녁 7시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시

USA-California를 복음화 하자!-MEX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환 영 사

CONGRATULATORY REMARKS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3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과 축제의 장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국 단위 통신 딜러십을 운영하며 사업에 매진하던 11년 전, 저는 평범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고향 선배님의 권유로 '제113주년 미주 한인의 날' 대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오해와 편견에 부딪히고, 예산을 구하기 위해 한·미 지도자들을 찾아 발을 동동 구르던 술한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모여 지난 120주년에는 『길 위에 길을 내다』라는 역사적 기록물을 발간했고, 대한민국 세종도서상 수상과 함께 미주 한인의 날을 당당한 국제적 행사로 발돋움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960여 번의 외세 침략을 이겨낸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에는 1만 명 미주 이민 선조들의 피땀 어린 지원이 있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독립을 이루기까지, 이름 없는 민초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개척자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물론 그 대가로 개인의 삶과 사업, 가정도 적지 않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는 '꾼'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마음으로 진정한 희생의 리더십이 발휘될 때, 우리 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워질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는 '공의'란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희생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비록 더디더라도 '정도(正道)'를 걷는 사람이 결국 아름다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공한 이민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녀들에게 어떤 정신적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돈과 성공을 넘어, 우리 민족의 기적 같은 역사를 후세에게 전하는 등불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긴 세월 부족한 가정의 빈자리를 견뎌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에게 진심을 전합니다. "가장으로서 더 큰 행복을 함께 나누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비가 걸어온 이 길, 이민 역사를 지키는 고귀한 발걸음만큼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제 마지막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주한인재단 LA 회장 이병만 장로

기도문

2026년 미주한인 이민 123주년의 새 아침을 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땅 미국에서 '미주한인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미주 한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주님,

1903년 1월 3일,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신앙과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인천 제물포항에서 갤릭호에 몸을 실었던 121명의 선조를 기억합니다.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그들의 발걸음은 오늘날 우리 미주 한인 사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하루 14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과 힘겨운 삶을 견뎌낸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23년이 지난 오늘 2026년 1월 12일, 이곳 LA 옥스퍼드 호텔에서 기념행사를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미주 한인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민 123주년을 맞는 오늘, 미주 전역의 300만 한인 후손들이 1세대 선조들의 신실한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국 주류 사회에서 200년을 향한 선명한 영적 비전과 꿈을 품은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서 온 다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대사'

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2003년도 한국정부, 미주 한인지도자, 하와이 한인 지도자들이 함께 뭉쳐 펼친 100주년 미주한인의날 Ross parade참가로 세계의 미주이민의날이 알려지게 하시며 2년 후 2005년 미 연방의회가 법률로 제정한 '미주한인의 날'이 미 전역에서 기념되는 것은 선조들의 헌신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열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미국을 특별히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주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적 이스라엘인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주님,

한미동맹 73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원합니다. 상호 신뢰와 굳건한 약속 안에서 더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세워주신 2세대, 3세대의 한인 리더들이 후대들의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2026년 새해에도 모든 동포가 병오년(丙午年) 달리는 말처럼 힘차게 정진하여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미주한인 100주년 기념사업회 이후 지금까지 헌신해 온 미주한인 재단 LA와 모든 섬기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환 영 사

CONGRATULATORY REMARKS



There were countless nights of anxiety, battling prejudice and seeking support from leaders in both nations. Yet, that desperation bore fruit: we published the historic record, *Paving a Road Upon the Roadless*, won the Sejong Book Award, and elevated Korean American Day into a prestigious international event.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 extend my warmest welcome to all of you gathered here to celebrate the 123rd Korean American Day.

Eleven years ago, I was an ordinary businessman focused on my national telecommunications dealership. By a twist of fate, an elder's earnest request led me to serve as General Chair for the 113th Korean American Day. Little did I know that this "chance encounter" would become a divine appointment that would completely transform my life.

This path required great personal and financial sacrifice. However, I remained steadfast. I believed that when leadership is driven not by self-interest, but by a spirit of "storing treasures in heaven," our community and the history of Korea would be truly renewed.

We must never forget our history. At the roots of modern Korea lies the sacrifice of 10,000 early immigrants. Without the devotion of those nameless pioneers who support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ur nation would not exist today. Preserving this pioneer spirit is the sacred mission of our generation.

The "justice" I believe in is setting aside self-gain for harmony through sacrifice. I am convinced that the one who walks the "Righteous Path," however slow it may be, will ultimately emerge as the true victor. To the successful leaders here today, I ask: "What spiritual legacy will you leave to your children?" Beyond wealth, I pray you will be beacons of light, passing our people's miraculous history to the next generation.

Finally, to my wife and sons: "I am deeply sorry for the time I could not give you, and I thank you for your silent support." My final wish is that this noble journey of protecting our history continues, no matter who leads this organization in the future.

May God's richest blessings be upon you and your families. Thank you. I love you all.

January 13, 2025

Elder Lee Byung-man President, Korean American Foundation USA (LA)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축 사

MESSAGE OF CONGRATULATIONS



존경하는 미주 한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한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1월 13일을 기념하며, 제21회 미주 한인의 날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60만 미주 한인 동포 여러분께서는 한 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정치 경제 문화는 물론 우주 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미국 사회의 신뢰받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도전과 성취 연대와 헌신으로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고 한미 양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신 동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동포 여러분께서 쌓아 올린 신뢰 위에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반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양국의 동맹은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이어 올해도 양국의 다양한 협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여정에 한미 동맹의 든든한 주역이신 동포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머나먼 미국 땅에서 모국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응원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의 삶과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미주 동포 여러분의 말씀을 늘 경청하며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모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주 한인의 날 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주 한인사회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고 한미 양국의 우정과 협력이 미래 세대까지 굳건히 이어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 1. 13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Congratulatory Remarks



**THE WHITE HOUSE
WASHINGTON**



January 13, 2026

Honolulu, Hawaii, aboard the SS Gaelic, marking the beginning of a remarkable chapter in the American story. Since that historic arrival, Korean Americans have enriched our Nation in every field of endeavor—from business and technology to the arts, medicine, and public service.

The story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the American Dream. Through hard work, faith, and an unwavering commitment to family, you have built vibrant communities and strengthened the very fabric of our society. Your entrepreneurial spirit has fueled our economy, and your dedication to the values of freedom and opportunity continues to make America great.

As we honor the 123-year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we also celebrate the enduring ironclad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deep ties between our peoples, rooted in our shared history and mutual respect, remain a 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beyond.

Today, we recognize the millions of Korean Americans whose contributions have made our Nation stronger and more prosperous. May this day be a time of pride and reflection as we look forward to a future of continued partnership and success.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large, stylized black ink signature, likely of Donald Trump, written in a cursive, bold script.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KAREN BASS
MAYOR



January 12, 2026

Dear Friends,

With great pleasure, I ext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the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Los Angeles (KAFLA)** on the occasion of its **123rd Korean American Day** celebration, recognizing the invaluable contributions Korean Americans have made to the spirit and success of Los Angeles.

This day commemorates the extraordinary journey that began in 1903 with the arrival of the first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and honors generations whose resilience, leadership, and cultural traditions have helped shape our city. KAFLA continues to empower and inspire the community by advancing philanthropy, strengthening social services, and supporting our most vulnerable and marginalized residents. Through its programs and initiatives, KAFLA plays a vital role in serving the largest population of people of Korean descent in the United States, while fostering cultural understanding and civic engagement. This celebration offers Angeleno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a shared history and to deepen appreciation for the contributions of their fellow residents.

You have my best wishes on a memorable event!

Sincerely,

Karen Bass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축 사

MESSAGE OF CONGRATULATIONS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제123주년 '미주한인의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인 이민 선조들이 인천항을 출발하여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지 꼭 123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동포사회는 이민초기의 역경과 고난을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03년 LA시의회에서, 그리고 지난 2005년 연방의 회에서는 우리 동포 사회가 미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제정하여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동포사회는 세계 최대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질적으로나 규모면에 있어 우리 한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주류사회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우리의 정치력을 강화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문화산업의 중심인 이곳 LA에서 우리 문화를 꽃피우고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미국의 건국 정신은, 나라 잃은 설움 속에서도 독립과 자주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인 이민 선조들의 염원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 땅에서 생업을 일구는 한편,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고, 그 중심 무대 중 하나가 바로 이곳 남가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 2028년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LA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는 LA가 세계의 중심 무대가 되고, 우리 한인 동포사회가 우리의 문화와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품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병오년 말의 해를 맞아, 말이 쉽 없이 달리듯 우리 동포사회도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달려나가기 바랍니다. 그 땀과 노력이 모여 우리 동포사회가 화합의 분위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1.12.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김영완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CITY HALL
200 N. Spring Street, Room 405
Los Angeles, California 90012
Tel: (213) 473-7012
Fax: (213) 473-6925

COMMUNITY SERVICE CENTER
9207 Oakdale Ave.
Chatsworth, CA 91311
Tel: (818) 882-1212
Fax: (818) 701-5254



Councilmember John S. Lee ***Council District Twelve***

Dear Korean American Foundation,

On behalf of the City of Los Angeles, I am honored to join you in celebrating the 23rd Anniversary of Korean American Day in Los Angeles. As we commemorate the 23rd Anniversary, we are reminded of the vital rol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continues to play in shaping Los Angeles's rich cultural and civic landscape. From small business owners and educators to community leaders and public servants, your dedication and leadership have strengthened our neighborhoods and enriched our shared future.

Korean American Day is a time to honor the journey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Los Angeles and to recognize the values that have guided generations, including resilience, hard work, family, and service. These values remain a powerful force in building a stronger, more inclusive city for all.

I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everyone who has contributed to this remarkable legacy over the past 23 years. May this celebration inspire future generations to continue advancing the spirit of excellence, compassion, and community that define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contributions to the City of Los Angeles. Together, we look forward to an even brighter future.

Sincerely,

JOHN S. LEE

Councilmember, Twelfth District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SUBCOMMITTEE ON FINANCIAL INSTITUTIONS
AND MONETARY POLICY
SUB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ILLICIT FINANCE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THE INDO-PACIFIC
SUBCOMMITTEE ON AFRICA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Young Kim
40th District, California

WASHINGTON OFFICE:
1306 LONGWORTH HOUS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15
(202) 225-4111

ANAHEIM HILLS DISTRICT OFFICE:
180 N. RIVERVIEW DR.
SUITE 150
ANAHEIM, CA 92808
(714) 984-2440

WWW.YOUNGKIM.HOUSE.GOV
@RepYoungKim

January 12th, 2026

Dear Friends:

I am honored to welcome guests and participants to this Celebration of the 123rd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and Korean American Day. Thank you to the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Los Angeles and President Byung-Man Lee for your hard work in organizing and hosting this celebration.



This year, we mark 123 years since the arrival of the first Korean immigrants on January 13, 1903. As an immigrant from South Korea myself, I know firsthand the hardships and hurdles many of us have faced embarking on a new path in America.

As a Korean American, I am proud of our heritage and the strong values of family, faith, and hard work that have been handed to us by previous generations. Through all the challenges they have faced, Korean Americans have come far in achieving the American Dream and contributing to every aspect of American society.

I am honored to be one of the first Korean American women elected to serve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to celebrate the contributions of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strengthen the U.S.-ROK alliance. It is an honor to represent you in Congress and best wishes for a successful event!

Sincerely,

Young Kim
Member of Congress, 40th District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CAPITOL OFFICE
1021 O STREET
SACRAMENTO, CA 95814
SUITE 7130
(916) 651-4037

DISTRICT OFFICE
3200 EL CAMINO REAL
SUITE 230
IRVINE, CA 92602
(714) 544-1035

California State Senate

SENATOR
STEVEN S. CHOI, PH.D.
THIRTY-SEVENTH SENATE DISTRICT



VICE CHAIR
BUSINESS, PROFESS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ELECTIONS AND CONSTITUTIONAL
AMENDMENTS
LOCAL GOVERNMENT

COMMITTEES
BUDGET AND FISCAL REVIEW
EDUCATION
BUDGET SUBCOMMITTEE #2 ON
RESOURCE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NERGY



January 12, 2026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서 제23회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123주년을 맞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시작된 한인 이민의 발걸음은 수많은 도전과 희생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오늘날 미주 사회 곳곳에서 존경받는 공동체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선대 이민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인 사회가 가능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날입니다. 특히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세대를 잇고, 지역과 문화를 넘어 한인 공동체의 자긍심을 드높여 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큼니다.

이 뜻깊은 행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 가운데, 지난 수년간 회장으로 봉사하시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신 이병만 회장님께 특별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감당하시며 한인의 날 행사를 지켜 오신 노고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아울러 함께 수고하신 모든 임원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미주 한인 사회가 연대와 참여를 통해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과거를 기리고 현재를 다지며,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석호 상원의원
Senator, 37th District
California State Senate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축 사

MESSAGE OF CONGRATULATIONS

미주한인의 날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지사 김태흠입니다.

올해로 백스물세 돌을 맞는 미주한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병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1903년 하와이로 향했던 최초 한인 이민 선조들의 용기와 희생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립니다. 낯선 땅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터전을 개척한 선조들의 정신은 오늘날 미주 한인 사회 곳곳에 살아 있으며, 미국 사회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주 한인 여러분의 역사는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코리아 파워'의 중심입니다. 한인들은 특유의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으며, 경제와 문화, 교육과 예술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와 공공정책 참여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K-컬처와 K-푸드를 넘어, K-브랜드와 K-경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 음식과 뷰티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인의 일상이 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혁신 기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LA 한인 사회는 세계한류의 허브이자 K-비즈니스의 전략적 거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지난 해 미주한인의 날을 맞아 LA 사무소를 개소하며, 경제·통상·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LA사무소를 중심으로 한미 양국의 상생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선조들의 개척정신을 기억하고, 미주 한인 사회의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 1. 13.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Derek T. Tran
45th District of California



Committee on Armed Services

Committee on Small Business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20515



January 12, 2026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people of California's 45th Congressional District, I am honored to extend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the Korean-American Foundation of Los Angeles on the success of the 23rd Annual Korean American Day Commemoration Ceremony.

This meaningful occasion marks the 123rd Anniversary of January 13, 1903, the historic moment that Korean immigration began to the Americas. That journey, launched by courageous pioneers seeking opportunity and dignity, laid the foundation for generations of Korean Americans who contribute profoundly to our nation's economic vitality, cultural richness, and civic life.

The Korean-American Foundation of Los Angeles has played an indispensable role in preserving this history, uplifting community voices, and ensuring that the sacrifices and achievements of Korean Americans are both remembered and celebrated. Your continued leadership and commitment to education, cultural preservation, and community empowerment strengthen not only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but the broader fabric of Southern Californi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we commemorate Korean American Day, we also reaffirm our shared values of perseverance, family, service,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I remain deeply grateful for the Foundation's partnership and its steadfast dedication to honoring the past while inspiring future generations.

Congratulations once again on a successful and impactful ceremony. I wish you continued success in the important work you do, and I look forward to our continued collaboration in the years ahead.

Sincere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ue ink, appearing to read "Derek T. Tran".

Derek T. Tran
Member of Congress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축 사

MESSAGE OF CONGRATULATIONS

3백여만 미주한인 가족여러분!

김홍신 작가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열렸습니다.

미주한인이민 123주년을 맞는 한인가족여러분에게 달리는 말처럼 힘차고 열심히 달리고, 새로운 도전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제123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백여만 미주동포의 삶에는 한민족의 역사와 뜨거운 선조의 피가 흐릅니다.

1903년 1월 추운 겨울 첫 미주 이민 1세대가 젤리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한 곳은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이었습니다.

102명의 한인 이주 노동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탕수수 밭의 고된 노동으로 얻은 품삯으로 123년이 지난 2026년 현재 미주 한인 후손들과 동포들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과 발전했습니다.

미주한인의 날은 우리선조들이 하와이에서 처음도착한 1903년 11월3일을 기념하여 미국연방의회가 법률로 제정한 우리 민족의 공식기념일 입니다.

미주한인이민 123주년을 맞는 미주한인의날에 1903년 첫 이민자들의 개척정신과 우리 선조들의 도전정신을 계승하여 미국사회에서 이민 200년을 향한 비전과 꿈을 펼쳐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주 한인 이민1세대 이후 300여만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2019년 부터 소수계 언어로는 미주 최초로 캘리포니아 LA한국교육원에서 '한글날'을 기념하고 한글을 통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한국어의 우수성을 교육하고 한민족의 뿌리와 역사를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교육자의 한사람으로 매우 기뻐했습니다.

미주에 살고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한민족의 우수성을 교육하고, 한인이민3백여만명의 차세대들이 1세대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미국 주류사회에서 당당히 성장할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미주 3백여만 한인가족여러분 모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민간외교관이자 대사입니다.

2026년도 올해는 한국전쟁 76주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한미동맹의 결속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주한인 3백여만 미주한인동포 여러분은 민간외교관으로서 한미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여 정치, 경제, 문화, 예술등 모든 분야에서 차세대 육성을 위해 동포 사회의 단결과 발전을 도모 해야합니다.

고국과 늘 함께 해 주신 미주동포여러분이 계시기에 어려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미주한인포여러분이 뉴스와 언론을 통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세계경제의 불안과 고환률로 인해 한국경제가 불안함에도, 미주한인동포 여러분이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다면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지혜롭게 극복하며 이겨낼 것입니다.

다시한번 123주년 미주한인의 날을 축하드리며, 매년 꾸준히 미주한인의 날을 위해 지난 21년간을 헌신과 봉사로 섬겨온 이병만 회장과 임원및 수고한 분들에게 마음모아 감사드립니다.



2026.1.13.

김홍신 소설가

(사)홍상문화재단 이사장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축 사

MESSAGE OF CONGRATULATION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3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경해 Linda Lim이며, 미주한인재단LA 부 회장입니다. 오늘, 바쁘실텐데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미주한인재단LA는 지난 23년간 이민 역사를 홍보하고 알리는 일에 주력을 다 했으며, 해마다 미주한인의 날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왔습니다.

미주한인재단LA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50개주 중에 가장 큰 주, 캘리포니아에서 23회의 기념식이 있기까지 LA시의회, LA카운티, California 주청사가 함께 한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한인 단체의 화합으로 이민역사의 선진들의 정신을 많은 한인 사회와 2세대 및 다 민족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기념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전, 현 단체장 및 지도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해 주신 이병만회장님과 여러 임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있을 모든 순서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경해
행사준비위원장



미주 한인의날의 뜻깊은 12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26년은 세계의 지각 변동과 함께 우리 우방 미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으로 패러다임의 변혁이 일어나는 해 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이민 교표사회 성장의.토대위에 새로운 비약의 시대에 맞추어 미국에 브랜드 기반에 한류의 기류를 확고히 하여 세계 브랜드로 예술, 과학기술, 의술 및 자연의학으로 시장 점유로 다국적시대의 패러다임에 선두즈자로 달려가는 2026년이 될것입니다

미주 한인 들의 정치성장과 함께 세계 경제 4위인 가주엔 한국계 체안 박사님이 주지사로 출마하시고 LA시장으로 앤드류 김 변호사님 출마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획을 긋는 미국 독립 250주년의 해에 우리 교표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 합니다

수고하신 이병만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미송
미미송 티비 / 체안 주지사 출마자 / 아시아 자문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미주한인의 날 기념 책자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미주한인의 날 기념 책자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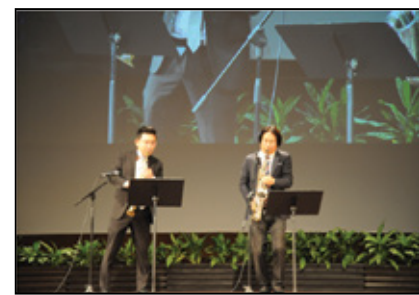
미수안인의 날 기념 행사





The 23rd Celebration and Proclamation of Korean American Day The 123rd (23rd LA /21th Federal) Korean American Day Anniversary

미주한인의 날 기념 책자





미주한인이민역사 123주년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123rd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America.

이종용 목사

미주한 인재단LA 자문위원장



미주한인이민역사 123주년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123rd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America.

송병주 목사

선한청지기교회



미주한인이민역사 123주년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123rd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America.

김영수 장로

OC교회협회장



미주한인이민역사 123주년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123rd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America.

손혜숙

(Kowin Pacific LA 초대이사장



미주한인이민역사 123주년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123rd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America.

임경해

준비위원장



미주한인이민역사 123주년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123rd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America.

Dr 미미송

수석 부대회장



미주한인이민역사 123주년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123rd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America.

최대용 장로



미주한인이민역사 123주년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123rd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America.

Dr. James Koo

CAL U Tech)



미주한인이민역사 123주년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123rd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America.

용수산 YONG SU SAN

213.388.3042



미주한인이민역사 123주년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123rd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America.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714.732.8477 (폴킴)



Korean American Day History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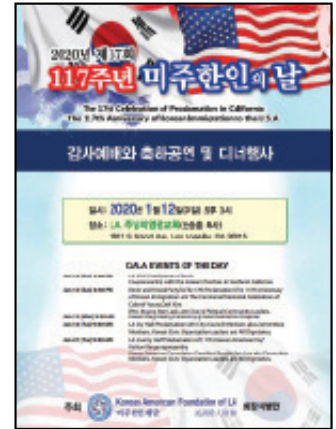
114회



115회



116회



117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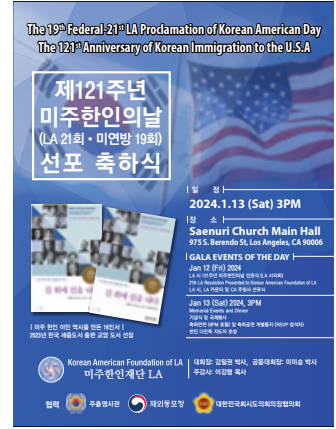
118회



119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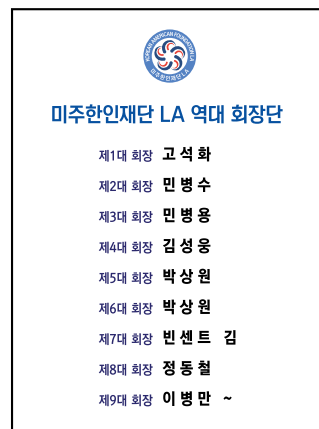
120회



121회



122회



미주한인재단 LA 역대 회장단

- 제1대 회장 고석화
- 제2대 회장 민병수
- 제3대 회장 민병용
- 제4대 회장 김성웅
- 제5대 회장 박상원
- 제6대 회장 박상원
- 제7대 회장 빈센트 김
- 제8대 회장 정동철
- 제9대 회장 이병만 ~



미주한인재단 LA
Korean American Foundation of LA

PO BOX 372286, Reseda, CA 91337
KoreanAmericanfoundationLA@yahoo.com
678.538.7777 | www.kafla.us
[EastWest Bank](Check-Pay to of-KAFLA)
Acct. 8027016628



113주년 선포식!

KOREAN AMERICAN FOUNDATION
Los Angeles

미주 한인재단은 2003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사업회(CCKI: The Centennial Committee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를 승계한 비영리법인입니다. 우리재단은 미주에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 이민의 역사와 정체성을 전할 뿐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런 문화와 예술을 알려 Korean American 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는 선조들의 고단했던 이민 역사와 삶을 통해 향후 우리가 나아가 할 방향과 내가 뿌리내리고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내가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기에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정립하려 합니다. 이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 한국인의 후예로서 우수한 문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여 가야할 때입니다. Why should I know about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in America? Essential Immigration History of Korean-Americans for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 Youth.



미주한인재단LA
Korean American Foundation LA